

전남 서부권

보해양조·한국제분·행남사·호남고무…

목포 향토기업들이 사라진다

경영난으로 속속 폐업·이전··· 지역민들 충격

62년 함께한 지역대표 보해공장도 장성으로

보해양조(주), 한국제분, 행남사, 호남고무, 남양어망 등 목포경제를 이끌던 대표적인 향토기업들이 하나둘씩 경영난으로 폐업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어 지역에 충격을 주고 있다.

보해양조(주)는 공장 이원화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목포공장을 10월 중 폐쇄하고 장성공장으로 통합한다.

이에 따라 지난 1950년 보해 창립과 함께 가동해 온 목포공장이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산정동에 있는 보해 목포공장은 지난 1991년 장성공장 개장과 함께 소주 등 주요 생산라인을 장성

으로 이전하고 군납과 수출용 주류 생산, 명절 선물세트 작업 등으로 명맥을 이어왔다.

이번 보해양조의 결정에 목포시민은 서운함을 표하고 있다. 모기업을 믿고 보해 저축은행에 예금 했다가 피해를 본 데 이어 목포공장 철수에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보해양조 창립 초창기에 부도가 났을 때 시민들이 내 고향 상품 이용 운동을 하다니 물심양면으로 도왔는데 보해의 상징인 목포공장을 폐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보해가 떠나면 술부터 바꿔야 하지 않느냐는 시민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향토기업이 사라진 목포권은 현대 삼호중공업 등을 중심으로 한 조선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있다.

보해양조(주)는 목포공장을 현대 삼호중공업 등을 중심으로 한 조선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있다.

했다.

또 향토기업인 남양어망과 20여년간 수출용 신발을 만들어 왔던 호남고무도 누적된 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지난 1990년대 폐업 했다.

한때 5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등 목포의 중추적인 기업인 한국제분도 목포시의 삼학도 복원화 사업으로 최근 목포공장을 폐쇄하고 당시로 이전했다.

본사를 목포에 뒀던 조선내화도 지난 1994년 광양으로 이전했고, 행남사는 지난 2002년 중추적인 생산라인을 경기도 여주로 옮겨 목포공장 생산량은 40%에 불과하다.

향토기업이 사라진 목포권은 현대 삼호중공업 등을 중심으로 한 조선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있다.

보해양조(주)는 목포공장을 현대 삼호중공업 등을 중심으로 한 조선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있다.



명량대첩 축제장 가는 길목 잡초 무성
해남군 산이면에서
황산면으로 이어지

는 국도 18호선 도로변에 무성하게 자란 풀과 잡목들이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어 관계 당국의 조속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 구간은 명량대첩 축제장으로 가는 길목이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목포시, 보해공장 폐쇄 결정 철회 요청

보해양조(주)가 목포공장 생산라인을 다음달 장성공장으로 옮겨 통합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목포시가 목포공장 폐쇄 결정을 철회해 줄 것을 회사측에 공식 요청했다.

시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해 저축은행 사태를 극복하기 위

한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이란 사실을 알고 있지만, 목포공장은 62년 된 지역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으로 시민의 박탈감과 상실감이 커 철회를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시민의 사랑과 신뢰를 저버리고 공장을 폐쇄하면

목포를 비롯한 서남권 지역의 보해 소주 등 제품 판매에 영향을 미치고 시민의 여론도 크게 악화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시는 “조선경기 침체와 제조업체마저 어려운 상황에서 목포공장 까지 폐쇄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면서 “회사 정상화를 위해 목포시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임영훈기자 lyc@

보해양조(주)는 목포공장을 현대 삼호중공업 등을 중심으로 한 조선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있다.

시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

해 저축은행 사태를 극복하기 위

흥부꽃서 나눔과 보은 축제

남원 인월·아영면서 내달 8~9일 흥부제

남원 흥부제가 10월 8~9일 이틀 동안 ‘우애·나눔·보은·행운’을 주제로 남원시 사랑의 광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흥부제는 기념행사와 경연·공연행사, 체험·전시행사, 부대행사, 연계 행사 등 총 5개 분야 14개종목에 걸쳐 진행된다.

흥부제는 흥부전의 배경지인 인월과 아영에서 흥부제 행사를 알리는 고유제를 시작으로 흥부꽃 축제, 민속학연구소는 흥부전의 배경지를 남원의 인월면과 아영면으로 고증한바 있다.

남원 시립 어린이합창단의 ‘어린

이뮤지컬 흥부불부’공연, 휴전 국악·무용, 등 다채롭게 펼쳐진다.

김상근 제전위원장은 “올해 흥부제는 의식행사 등을 지양하면서 체험행사를 늘리고, 가수 중심의 축하공연을 국악과 흥부에 맞는 컨셉으로 전환해 시민과 관광객을 즐겁게 하는 내용으로 축제로 꾸밀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희대 민속학연구소는 흥부전의 배경지를 남원의 인월면과 아영면으로 고증한바 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낙풀로 불리는 황죽규 꽃 활짝

원주군 소양면 대승 한지마을 주변에 ‘낙풀’로 불리는 황죽규(黃蜀葵)

꽃이 활짝 펴 눈길을 끌고 있다. 황죽규 뿐만 아니라 한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풀 원료로 쓰인다.

/연합뉴스

희귀병 투병 어린이에 ‘사랑의 손길’

김제경찰 임호연 경사

김제경찰서 한 경찰관이 희귀병으로 투병하는 어린이를 2년째 남몰래 도와 귀감이 되고 있다.

김제경찰서 경무계에 근무하는 임호연 경사는 지난 2009년 ‘선천성 거대결장’(무향문)이라는 희귀병과 싸우고 있는 백모(11)군과 일대일 자매결연을 한 이후 친동생처럼 돌보고 있다.

백군은 6회 이상 수술을 해 대장이 거의 없고 소장만 있는 상태여서 고열량의 영양제를 가슴 호스를 통해 주입해야 하며, 배설물 처리를 복부에 달고 다녀야 한다.

더욱이 백군과 함께 생활하는 외할머니 역시 기초생활 수급자



인데다 신부전 증과 당뇨 합병증으로 건강이 매우 안 좋은 상태다.

임 경사는 2년째 백군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8월 수술시에는 적극적인 흥보활동으로 1200만 원을 모금, 무사히 수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왔다. 수술 이후 백군은 경과가 좋아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건강상태 또한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고 있다.

임호연 경사는 “백군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살피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가을 참조기 풍어···어선마다 만선

군산 안강망 선원들 15년만에 ‘웃음꽃’

한차례 출어 1억~1억2000만원 어획고

최근 제주도와 전남 일대 바닷물 수온이 일락에 따라가면서 ‘가을 참조기’ 어장이 폭넓게 형성되며 군산 안강망 선단이 15년만에 조기 풍어(豐漁)를 맞았다.

오징어가 잡히지 않아 속을 끓이는 동해안 어장의 어민들과 달리 서해 어장의 어민들은 요즘 가을 조기 풍어로 웃노래를 부르고 있다.

21일 새벽 군산수협 해망동 수산물 센터에 위판한 조기잡이 어선들(5척)이 1회 조업으로 올린 어획고는 1억~1억2000만원에 달했다. 한 어선은 최고가인 1억2700만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한번 출어에 기름비와 부식비, 인건비를 빼고도 한 척에 5000만~6000만 원씩 번 셈이다.

이는 3000만원의 어획고를 기록한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할 때 무려 3배 가 넘는 어획고다.

이 같은 어획량은 9월 조기 조업량으로는 15년여 만이라고 위판장의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때문에 해망동 위판장도 모처럼 활기를 띠고 선주와 선원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한 어민은 “지난달 중순 제주도 남단에서 첫 그물을 던진 뒤 북상하는 조기떼를 봄으며 조업하고 있다”며

“어장에 형성된 조기떼가 어머어마해 진 그물마다 조기들로 가득찬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군산지역 안강망 어선(보통 80t~110t) 17척이 조기잡이에 나서는 것은 보통 10월부터다. 올해는 제주도 남쪽에 조기떼가 일찍 출몰해 조업이 한 달 앞당겨졌다.

조기잡이는 기을부터 다음해 2월까지 주로 이뤄진다. 이는 조기의 알이 11월부터 차올라 이 시기에 잡히는 조기가 상품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이다.

군산수협 김형문(46) 해망동위판장은 “올해는 제주도 남쪽 수온이 한 달 일찍 알맞게 형성됐다”며 “점차 북상하는 조기어군이 흑산도에 도달하는 내년 2월말까지는 조기 풍어를 이룰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목포덕인고·예향초교 교육평가 우수

대한민국 좋은학교 박람회 참가

목포 덕인고(교장 김무순)와 목포 예향초등학교(최은식)가 전국의 우수 학교를 소개하는 ‘2011 대한민국 좋은 학교 박람회’에 참가한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최하는 ‘좋은 학교박람회’는 ‘미래의 꿈이 피어나는 곳 그곳은 학교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에는 ‘대한민국 좋은 학교’로 선정된 전국 32개 초등학교 등 170개 학교가 참가한다.

참가학교는 교육 관련 전시와 교육 상담, 세미나, 강연, 학교 공연, 학교 부스체험 등의 행사를 펼치게 된다.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예향 귀엄동아 IBCD운영) ▲교육과정의 선도적 운영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활동 운영 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덕인고는 영어교과 교실제, 사교 절감교육, 기초학력 향상 중점교육, 학교문화 선도교학 등 창의적이고 학생 중심적인 교육경험과 활동이 높게 평가받아 선정됐다.

특히 전국대회에서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은 덕인고 학생부가 개막식 행사의 피날레 공연을 맡아 우수교육활동은 물론 예향 목포의 예술성을 전국에 알렸다.

또 목포 예향초등학교는 ▲학교브랜드화 프로그램 운영(예향 귀엄동아 IBCD운영) ▲교육과정의 선도적 운영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활동 운영 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윤선도 유물전시관’ 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해남 ‘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이 ‘2011 한국건축문화대상’ 사회 공공 부문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10월 준공한 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은 예학자인 고산의 삶과 문화예술을 아름다운 전통한옥으로 구성했다.

특히 지하 전시관과 지상 전통한옥을 이어주는 매개공간으로서 ‘아트리움(atrium)’을 도입한 것과 전시관 동선배치 마지막을 녹우당으로 자연스럽게 연계시켜 조화를 이룬 것도 건축적 표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계

기로 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의 우수성이 높게 평가받은 믿음 보다 체계적인 환경정보로 관람객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가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2년 제정된 ‘한국 건축문화대상’은 건축문화창달에 기여하고자 건설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한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뉴스 브리핑

익산시 여성기업 10개업체 선정 마케팅 지원

‘대한민국 제1호 여성친화도시’인 익산시는 우수한 품질 및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도 판로개척, 자금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여성기업 10개 업체를 선정,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여성기업인이 직접 운영하는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현황

‘제49회 군산 시민의 날’ 행사와 ‘군산 근대 역사박물관’ 개관 기념식이 오는 30일 장미동 박물관에서 열린다. 이날 기념식은 군산 역사와 새로운 미래를 담은 기념공연, 기념식, 개관식, 시민 한마당잔치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이날 기념식에서는 ‘2011년 시민의 정’을 비롯해 모범시민·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박물관 유관자 등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열린다.